



"임무영 담임목사의 고요한 아침의 편지"



다른건가요?

얼마 전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아내와 결혼하기 전 너무나 달랐고, 그 '다름'으로 인해 다툼도 잦았지만, 인생 중반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다름'(Difference) 때문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인생의 참 맛을 느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에서 목사님의 마지막 한 문장이 마음에 참 와 닿았습니다. "다른 데 매력을 느껴서 결혼 했다가, 다른 것 때문에 죽도록 싸우다가, 이제는 다른 점을 받아 들이며 함께 성숙해 가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내가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이는 반증입니다. '다름'이 곧 '틀림'이라는 내 인생의 고집과 생각에서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여유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을 오늘날 세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 '다른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예배 드리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이민자로 미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삶 한 복판에서는 여전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한국에서 사는 것 처럼'살아가고 예배하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모든 예배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도 더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다르다고 생각했던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발 더 뛰고, 한 번 돌아보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분들이 예배를 불편해 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기존 예배보다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미국교회 성도님들이 불편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불편하셨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예배가 아닌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드러졌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셨습니까? 많이 불편하셨나요? 아마도 불편함 보다는 감사함과 즐거움이 넘쳤던 예배였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르다고 생각했던 분들과 드러진 다른 예배,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혹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들요.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됨을 소망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 배려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비록 내가 불편하고 어색해도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브릿지 교회에 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렇게 친숙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예배, 앞으로 우리 브릿지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다를것 같지만 다르지 않았던 그 마음... 2023년도, 이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2022. 11. 27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 www.chicagobridgechurch.org

차세대 동역자: Grace Lee(유치부), Ahuwani(유년부/초등부), Janice Kim(youth)
담임목사: 임무영



Christ Lutheran Church 와 함께 한 2022년 추수감사절 연합예 이모저모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초 / 대 / 합 / 니 / 다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출전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대림절 첫 번째 주일 (Advent 1)

예배인도: 임무영 담임목사

- 사도신경.....다같이
여는 찬양.....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1부)이은신 전도사
(2부)손유기 형제
헌금찬양.....다같이
- “주 예수 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 94장)
- 헌금기도.....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다같이
교회소식.....임무영 목사
성경봉독.....임무영 목사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9)>

느헤미야 6:15-7:4
(Nehemiah 6:15-7:4)

설교.....임무영 목사

“끝이 끝이 아닙니다”

(The Accomplishment is not the end)

설교후 찬양.....다같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Even In Seasons of Water)

*축 도.....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본 당	
주일예배 2부	12:00 pm		
말씀묵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다음 세대 예배	영 아 부	12:00 pm	Nursery
	유 치 부	12:00 pm	Room 14
	유 / 초 등 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

1. 환영: 시카고 브릿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정성껏 준비된 식사와 함께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공지사항
 - a. 11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 b. 12월달 생명의 삶 Pick up (문의: 안내팀 및 위경미)
 - c. 선교사 후원에 따른 개인별 선교 헌금 봉투를 로비에서 pick up(매달 3, 4주일)
 - d. 브릿지 **교회 홈페이지** 이용: www.chicagobridgechurch.org
 - e. 브릿지 **교회 인스타그램(instagram)** 오픈: ID (chicagobridgechurch)
 - f. **온라인 헌금 안내:** Zelle 이용(Chase Bank)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 g. **2023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정별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3. 예배및 훈련
 - a. 토요 새벽예배(베드로전서 강해 15): 12/3(토) 6am, 현장및 Zoom
 - b. 1부예배: 10:30am (소예배실)
 - c. **12월 성찬예배:** 12/4(주일)
4. 한마음 정기총회: 11/27(주일) 예배 후 본당 / 재정보고 및 신임 임원선출
5. 12월 운영위원회: 11/29(화), 6pm / 황은수 집사 가정
6. **Coffe Break 산상수훈 소그룹 모임 (8주차)** : 11/30(수), 7:00pm / **모임장소: 교회**
7. 4분기 새가족 환영회
 - a. 일시: 12/4(주일) 2부예배 및 친교시
 - b. 대상: 유영아, 이로렌, 정인범, 박광래, 박은성
8. 찬양팀 / 미디어팀 연합모임
 - a. 일시: 12/4(주일) / 장소: 임무영 담임목사 가정
9. 2023년도 헌금봉투 수령
 - a. 픽업일시: 12/11(주일)~12/31(토)까지
 - b. 문의: 재정팀 (팀장: 길한나)
10. 2022년도 성탄절 칸타타 연습
 - a. 일시: 친교 후 / 장소및 대상: 본당 / 찬양을 좋아하는 브릿지 가족 누구나 (문의: 이신숙)
11. 브릿지 찬양팀 임시 리더임명: 이희철 장로 (이사무엘 집사 복귀: 12/25)
12. 예배 및 봉사위원
 - a. 친교: 이종필, 김지영(손유기) / 다음주: 김지혜, 노혜정(이사무엘)
 - b. 다음 주 기도: Ahuwani(1부) / 박선옥(2부)
 - c. 12월 안내및 헌금위원: 길한나, 김지혜(헌금) / 김정미, 박재홍(안내)
12. 감사: 이번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3. 기도제목
 - a.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사명을 잊지 않도록
 - b.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를 위해
 - c.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전성민, 이복희, 김창걸, 고지은, 박양자)
 - d. 선교사님들 사역 (인도네시아: 사론학교, 필리핀: 정재영 선교사, 멕시코: 최희영 선교사, 미얀마: 리안목사, 실버선교)
 - e. 담임목사와 운영위원, 팀장및 사랑방 리더자들 (방지기, 부방지기)을 위해
14. 지난 주 출석: 어른(102), 다음세대(34), 미국교회(53) / 총 189명